

파킨슨병의 첫 증상들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 발견되어 병을 의심하게 될 때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특

서와 강직임에도 환자들은 대부분 이 증상들은 노인이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건강한 다른 동년배에 비해 움직임에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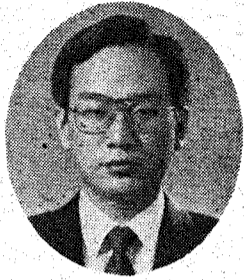
체 파킨슨병 환자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년성 파킨슨병이 일반적인 파킨슨병과는 다른 형태의 질환인가에 대해서는 확

것입니다라고 설명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은 원래 그래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파킨슨병의 증상은 매우 서서히 나타나서 조금씩 심해지게 될

는 동안에는 떨림이 감소하고, 수면 중에는 떨림의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런 진전증을 안정시킨 전이라고 합니다. 즉 손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하면서 무릎 위나 의자에 손을 가만히 얹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떨림이 심하고 물 컵을 들거나 물건을 잡고 있으며 떨림이 감소하게 되어 초기의 파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단



김 상 운
(한림의대 교수)

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증상입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파킨슨병의 아주 초기에는 그 증상이 특징적이지 못하고 아주 모호해서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피곤함이 계속되거나,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웬지 힘이 없고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들이 병의 아주 초기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다른 여러가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증상

실한 지식이 아직없는 상태이나 치료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발병 연령이 낮은 환자들은 약물 치료, 특히 L-dopa라는 약물에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거나 증상의 심한 변화나 운동장애(몸의 일부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생각한대로 잘안움직여지는 증상)같은 약제의 부작용이 치료 초기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이 노년에 발병한 경우 특히 70세 이후에 나타난 경우에도 치료방침은 보통의 파킨슨병 환자와 같으나 환각, 정

니다. 어떤 경우는 매우 심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병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노인 분들이 매우 많으며 환자 자신도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질환들 특히 퇴행성질환이라고 불리는 병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확실한 이상이며, 치료를 받으며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뒷목이나 허리의 통증 등이 병의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가끔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거나 말할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주소로 하여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걷기가 어렵고 쉽게 피곤해 지거나 걸을 때 팔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파킨슨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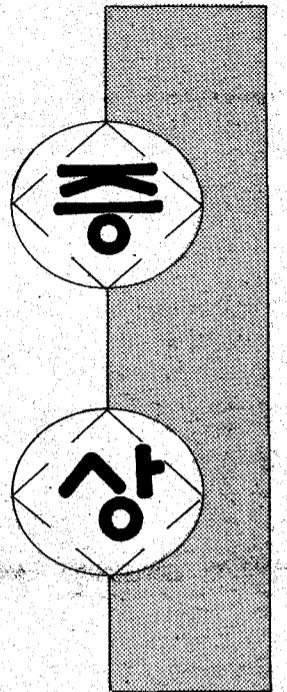
파킨슨병의 주요증상들

파킨슨병에서는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가지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의 떨림(진전)
2. 움직임의 둔해짐(운동완서=운동불능증, 무동증, 서동증)
3. 근긴장도의 증가(강직=경직)

▲몸의 떨림(진전)

파킨슨병에서 관찰되는 진전증(tremor), 즉 떨림은 주로 환자가 쉬고 있을 때 나타나며 자발적인 운동을 하



파킨슨병 환자에서 보이는 진전증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환자는 매우 성가시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안정시 진전과 함께 체위성 진전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동반된 체위성 진전은 환자의 일상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정시진전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진전으로 안정시 진전이 나타나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 파킨슨병 환자이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모두가 안정시진전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손을 움직이거나 물체를 잡으려고 할 때 진전이 심해지는 체위성 또는 활동성진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의 환자

<10면으로 계속>



정 위치의 뇌세포가 파괴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첫 증상도 역시 매우 서서히 나타나면서 또 어떤 증상이 반드시 먼저 나타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이 나타날 때의 파킨슨병 진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의 중요증상으로는 운동완서와 강직, 그리고 진전증, 즉 떨림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운동완서나 강직은 모르는 채로 주로 떨림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떨리는 증상은 환자나 주위사람들에게도 쉽게 관찰되는 증상이나 실제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운동완

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운동완서나 강직같은 증상은 환자 스스로가 느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의 첫 증상은 대개 50, 60대의 나이에 나타나게 되나 훨씬 일찍부터 나타날 수도 훨씬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면 약년성 파킨슨병(Juvenile Parkinsonism)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30세 정도의 나이에 첫 증상을 보이거나 예외적으로 20세 이전부터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약년성 파킨슨병은 전

신착란 등과 같은 정신과적 부작용이 치료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제를 사용할 때 매우 적은 용량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파킨슨병을 생각하게 되는 첫 증상은 대개의 경우 손의 떨림이나, 걸음걸이의 이상, 허리가 굽는 자세의 이상, 우울증, 허리통증, 소변장애 등으로 손의 떨림을 제외하고는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다른 과로 찾아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을 진찰할 때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이 병으로 인한

謹賀新年

가톨릭 중앙醫療院

醫務院長 金富成

전화: 五九〇一〇〇三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副會長 金鍾仁

전화: 四六四一六五四四

일동제약주식회사

會長 李金器

전화: 五二六三三〇三

일양약품주식회사

社長 鄭度彦

전화: 九二二五二九一

제일약품주식회사

社長 韓昇洙

전화: 五四九一七四五一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에너지

社長 成孝慶

전화: 五四七一七〇五六

<9면에서 계속>

는 떨리는 증상이 매우 약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손이 떨리지 않는다고 해서 파킨슨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파킨슨병의 진전증은 안정시진전 중에서도 마치 손으로 알약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동전을 세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진전증은 양측 팔다리 중 어느 한곳에 국한되어 나타나거나 오른쪽 또는 왼쪽의 어느 한 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안감은 진전증을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낚들 앞에 서면 진전이 심해질 수 있고, 당황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팔다리에서 나타나는 진전증이 항상 파킨슨병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파킨슨병이 아니면 팔다리의 진전증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가지 질환들을 감별해야 하는데 그 원인적 진단에 따라 각각의 치료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인성진전증이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진전증과 자주 혼동되는 증상인데 치료방법은 전혀 다르고 그에 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전증도 신경과에서 진료하는

▲움직임의 둔해짐(운동완서=운동불능증, 무동증, 서동증)

파킨슨병의 또하나의 중요한 증상으로는 몸의 움직임이 서서히 느려지는 운동완서가 있는데, 이 증상으로 인해 환자가 하려고 하는 모든 동작이 서서히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운동완서는 파킨슨병의 증상 중 가장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자신이나 보호자들도 병의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완서가 있는 환자들은 어떤 동작을 할 때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듯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게 움직이나 대개의 경우 하고자 하는 일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완서로 인해 이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걸음걸이의 이상: 전체적으로 동작이 느려진 것은 걸을 때 잘 나타나는데 보폭이 작아지고 발이 지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으며, 가끔은 발을 끌면서 걷게 됩니다. 또 보행시 팔의 흔들림이 점차

지려고 하게 됩니다. 제한된 공간, 특히 문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환자가 머뭇거리게 되고 갑자기 몸이 굳으면서 앞으로 넘어지기 쉬워지는데 이러한 운동장애는 환자가 걷다가 뒤로 돌아서 가려고 할 대에도 잘 나타나며 마치 로봇처럼 조금씩 여러 번의 동작으로 들게 됩니다. 또 걸을 때 보면 환자의 상체가 약간 앞으로 굽어져 있고 무릎과 팔꿈치가 굽혀져 있어 마치 서둘러 움직이는 모양을 하게 됩니다.

얼굴표정: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얼굴 표정이 많이 감소하여 마치 가면을 쓴 것 같고 실제 감정의 표현이 없는 듯해 보이면서 눈을 깜박거리려는 횟수도 감소하여 보통 가면안이라고 부르는 얼굴 모양을 하게 됩니다.

말하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목소리의 음량이 점차 작아지고 마치 입에 수건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 심

활신 거북한 증상입니다. 강직이란 증상은 파킨슨환자에게 아주 특징적인 가면안, 즉 표정이 없는 얼굴과 전체적으로 굳어버린 자세, 어떤 운동이나 움직임의 어려움, 특히 옷을 입고 단추를 채우거나 글씨 쓰기등의 세밀한 동작이 필요한 운동에서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강직의 증상도 때에 따라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직과 동작완서는 환자가 가장 곤란하게 느끼는 증상이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환자의 생각이 근육의 움직임보다 빠르기 때문에 예정에는 쉽게 해왔던 간단한 일을 하기 어려워지며 이것이 환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주게 됩니다.

전형적인 환자의 경우 환자의 팔을 굽힐 때 마치 납으로 만든 파이프를 굽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며, 천천히 굽혀보면 막대기로 튼니바퀴 위를 굽는 것처럼 규

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그 밖의 증상

그 밖의 여러가지 파킨슨병의 증상 중에서, 보행장애, 연하곤란, 언어장애 등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곤란을 주게 됩니다. 어떤 환자는 걸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발바닥이 마치 땅에 붙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걸음을 시작하기가 어렵거나 보행 도중에도 걸음이 저절로 멈추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걸음의 방향을 바꾸려 할 때 더 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의 환자들에서는 보행시 환자의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숙여져 마치 앞으로 넘어지 듯이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는 걸음걸이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파킨슨환자의 경우에는 균형감각의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환자의 활동이 매우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균형장애로 인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됩니다. 침을 흘리는 증상도 정상인의 경우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침을 삼키는 행동이 파킨슨병환자에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타내데 파킨슨병 치료약제로 비교적 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얼굴 피부에 기름기가 끼고 허물이 벗겨지는 듯한 피부변화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도 파킨슨병 약제의 투약으로 쉽게 없어질 수 있으며, 변비는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완화제나 식이요법 등에 의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배뇨장애도 가끔 나타나는데, 배뇨장애는 변비가 오래 계속되어도 나타날 수 있으며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흔히 나타나는 변비엔 완화제, 식이요법등 필요

건강한 동년배에 비해 움직임에 어려움 있으면 그 자체가 증상

여러가지 질환중에 하나이며, 그 분류가 복잡하고 그 분류에 따른 각각의 원인과 치료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따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전은 가끔 병을 의심할 수 있는 명백한 첫 증상으로 여기지게 되는데 병이 진행하면서 서동증이나 강직 등의 증상이 뚜렷해지게 되어 증상으로써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0%의 환자에서는 진전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진전이 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에 비해 전체적인 예후가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나중에는 팔이 약간 굽혀진 채로 몸 옆에 붙이고 전혀 흔들리는 것없이 걷게 되는데 이 걸음걸이는 매우 특이하여 아주 오랜 옛날의 조각품들에서도 이러한 걸음걸이가 관찰됩니다. 여기서 병이 더 진행되면 어떤 동작을 시작하거나 멈추기가 어려워지는데 환자가 앞으로 걸어나가려 하면 마치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첫 걸음을 시작하기가 어려우나 일단 걷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걸기가 쉬워지는데 다시 멈추려하면 또 마음대로 걸음이 멈춰지지 않아 갑자기 멈추기가 어렵고 앞으로 쓰러

한 경우에는 환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고 말의 억양과 리듬감도 모두 없어져 마치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 전화기를 통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긴장도의 증가(강직=경직)

근육의 강직 또는 경직(stiffness or rigidity)은 근육의 긴장도가 저절로 높아져 손으로 팔을 펼려고 하면 마치 일부러 안필려고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직의 증상은 진전증에 비해 일반인이 봐서 그 정도를 알아내기는 어려우나 환자에게는 진전증보다

칙적으로 오는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데 튼니바퀴성 강직이라고 하며 이러한 튼니바퀴성 강직과 수동적 운동에 대한 저항은 비교적 병의 초기에 팔목 등의 관절에서 먼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근육강직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하게 아픈 경우는 드물고 어깨나 등부위 등에서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진통제보다는 파킨슨병 치료 약제를 사용하여 파킨슨병의 증상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을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에서 진

謹賀新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식회사
會長 韓光鎬
전화: 七九三〇六三五

한국아스트라주식회사
社長 崔源洙
전화: 五八七一一六三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社長 禹正益
전화: 四六四〇八六一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社長 李漢求
전화: 六九三〇四二五

동서병원
院長 柳聖熙
전화: 九二六〇九一七

주식회사 의학신문사
社長 柳準植
전화: 四六七二四三二

언어장애 보여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을 초래하여 운동력과 관계없는 여러가지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심장, 위, 간 등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므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의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땀을 내어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자동조절능력이 감소하여 외부 날씨가 뜨겁게 되면 체온이 같이 증가하여 마치 열이 나는 것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심하면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문제는 변비로, 가끔은 심해져서 대장이 완전히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자체에 의해서 정상적인 장 근육의 기능이 많이 감소하여 변비가 생기나 노인들에게서 이미 있던 변비의 증상이 더해져 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가지 소변장애와 발기불능 등도 많이 나타나며 가끔 피부의 지루가 나타나 기쁨기가 많고 잘 벗겨지는 피부를 갖게 됩니다.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환자에게 큰 해가 되지는 않으나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외에도 불편하게 뜨겁거나 찬 기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주로 다리에서 많이 나타나며, 밤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과도한 발한으로 환자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간혹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도한 발한으로 인해 밤에 자다가 일어나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들로는 다리에 뜨겁게 타는 듯한 이상감각증상, 피부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감각증상, 심한 피부 간지러움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매우 심하고 환



모르고 지내는 경우 많아 병의 과정이 서서히 일어나

자가 실제로 느끼거나 환자 자신도 구체적으로 이런 감각장애의 부위를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로는 발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도 자율신경계의 기능장애로 인한 것입니다. 소변이 방광에 가득차 있어도 소변이 잘 안나오거나, 방광에 소변이 없어도 자꾸 소변이 마려운 등의 소변장애도 있을 수 있으며, 노실금도 파킨슨병이 잘 생기는 연령층에서는 드물지 않은 증상입니다. 정신과적 증상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사고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인데 신체 운동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것처럼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게 되어 파킨슨병 환자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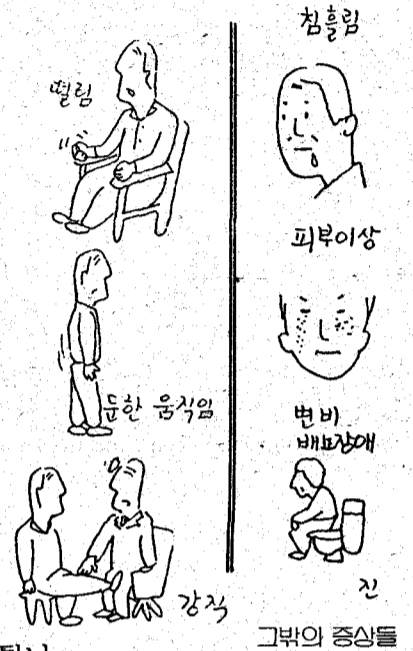
하고 새롭고 낯선 것들을 피하려고 하나, 생각의 질적인 면, 즉 생각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이렇게 생각의 과정이 느려진 것은 약물 치료로 매우 빠른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환자에게는 단순한 사고의 느려짐 이상의 사고 장애를 나타내게 되는데 기억장애와 주의집중장애가 나타나며, 이해력이 감소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 장애가 같은 나이의 정상인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에게 확실하게

상이 충분히 좋아지나, 환자가 자신의 우울증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증상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을 하려 할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외에도 병의 첫 증상이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경우 우울증 같은 증상이 다른 신체적 증상들에 비해 수개월 또는 수년을 앞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서장애로 기분이 가라앉고 절망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없어지고 쉽게 비관을 하며 일에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려 애쓰면 긴장이 더해져 증상이 심해지면서 떨림이 증가하고 갑자기 몸이 굳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동좌동결의 상태가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저 대신에 포오크를 사용하거나 물을 마실 때 빨대를 이용하는등, 환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구들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과 외식을 위해 나갈 때 꼭 준비하여 지참하는 것이 환자를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불면증과 수면장애도 나타나게 되는데



환자의 생각이 근육의 움직임보다 빠르기 때문에 좌절감을 주게된다.



주요 증상들

그밖의 증상들

더 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또 많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증상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우울증의 증상이 병의 첫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신체적인 증상보다 수개월 내지 수년을 앞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우울증은 뇌 안에서 유지 되면 신경전달물질들간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정신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은 일반적인 파킨슨병 치료약제를 복용하면서 없어지게 되는데 항파킨슨병 약제만으로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약간의 항우울제 만으로도 증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의식의 혼돈, 기억력장애, 주의 산만, 무관심 증 등이 보이기도 하며 불안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되는 등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평소보다 몸이 더 굳고 더 떨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환자의 여러 증상을 알게 되어야 대개의 경우 크게 개의치 않으므로 환자도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 하지

가끔 잠을 설치는 정도라면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을 설치는 증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잠들기 어렵고 밤을 자주 새게 되면 생각해 봐야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막연하고 특징적이지 못할 때는 파킨슨병의 초기라고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가능한 진단명 안에 파킨슨병을 포함시켜 주의깊게 관찰하고 환자에게 확정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보류해야 합니다.

<끝>

謹賀新年

국민병원
院長 宋泰善
전화: 三二二五二二三

광산의원
院長 金昌烈
전화: 二五六〇六六四

醫療法人 길병원
理事長 李吉女
전화: 四六〇三五二〇

성애의원
院長 南宮哲
전화: 八四七七八五七四

자생한의원
藥學博士 申俊湜
전화: 五六三〇〇三四

김경옥약국
藥學博士 金京玉
전화: 四九一六七六一